

주간 통일정세

2017-47

Contents

I. 북한정세

1. 정치
2. 경제
3. 사회문화
4. 외교국방

II. 동북아정세

1. 한반도 정세
2. 주변국 정세

III. 북한인권

1. 북한인권 국제동향
2. 북한인권 내부동향
3. 북한인권 남한동향
4. 탈북자 및 이산가족·납북자·국군포로
5. 대북지원

주간통일정세는 북한 및 국내외 언론보도를 참조하여 작성된 것임.

I 북한정세

■ 개요

분류	일자	
정치	11.26	北 리종혁 “美와는 오직 핵으로 힘의 균형 이뤄야”(연합뉴스)
	11.27	北 김영남, 이집트에 위로 전문…“온갖 형태 테러에 반대”(연합뉴스)
	11.28	北 김정은, 양어장 시찰…“자력갱생 혁명정신 발휘”(연합뉴스)
		北 “올림픽기간 도발설, 황당무계 억지주장”(연합뉴스)
	11.29	“용감히 쏘라”…김정은, 이번에도 미사일 발사 ‘친필명령’(연합뉴스)
		北 김정은 “핵무력 완성 실현 뜻 깊은 날…위대한 승리”(연합뉴스) 北, 국가핵무력 완성 선포…“신형 ICBM 화성-15 발사 성공”(연합뉴스)
	11.30	北 신문 “11월 29일은 핵무력 완성 이룩된 역사적인 날”(연합뉴스) 조선신보 “北 핵무력 완성, 평화 경제부흥 담보”(연합뉴스)
군사	11.29	北, 75일만의 미사일도발…ICBM급 동해상으로 발사(연합뉴스)
		北, 평남 평성서 동해로 탄도미사일 발사…軍, 정밀타격훈련(연합뉴스)
		국제사회, 北미사일 규탄에 한목소리…“세계평화 위협”(연합뉴스)
		‘북한의 장거리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정부 성명’ 전문(연합뉴스)
		“역대최장 北미사일, 워싱턴도 사거리…2단추진체 개량한 듯”(연합뉴스)
	北, 재진입 기술확보 불확실…“핵무력완성 주장 선전용” 관측도(연합뉴스)	
11.30	北 ‘화성-15’ 1단에 ‘쌍둥이 엔진’ 장착…추력 2배 커져(연합뉴스)	
	日언론 “北, SLBM 북극성-3형 완성단계…조만간 발사실험”(연합뉴스) ‘화성-15형’ 사진 본 美전문가들…“정말 큰, 신형 엔진 미사일”(연합뉴스)	
경제	-	-
사회 문화	11.25	北, 임진강 수계에 댐 건설…이천군민발전소 공사중(연합뉴스)
	11.30	北, ‘핵무력 완성’ 경축 분위기 조성…“방방곡곡 감격·환희”(연합뉴스)
외교 국방	11.25	쿠바 카스트로 의장, 北외무상 접견…“국제적 상호 관심사 논의”(연합뉴스)
		北, 아셈 외교장관회의 성명 비난…“존엄에 정면 도발”(연합뉴스)
	11.27	러 차관, 北노동자 수용중단 “안보리 결의대로 반드시 할 것”(연합뉴스)
		北, 아프리카 지원史 부각…美 ‘대북압박 동참요구’ 대응?(연합뉴스)
		시리아 전후 재건사업에 北 ‘군침’…“양국, 협력 논의”(연합뉴스)
	11.28	北, 장진호 전투전사도 고쳐…중국군 아닌 조선인민군 참여로(연합뉴스)
11.29	러시아 “北 탄도미사일 발사 심각히 우려…도발 행위”(연합뉴스)	

	프랑스 “北 탄도미사일 발사 강력 규탄…제재 늘려야”(연합뉴스)
	獨 “北 미사일 발사는 국제사회 위협”…北대사 초치(연합뉴스)
	伊 “北미사일 발사는 큰 위협…무책임한 정권에 압박 강화해야”(연합뉴스)
11.30	틸러슨 “재무부 추가제재”…백악관 “대북제재 곧 발표”(연합뉴스)
	헤일리 “北완전과괴…대북 원유중단·외교관계 단절해야”(연합뉴스)
	英, 北대사 초치해 미사일 발사 항의…대북 여행주의보 갱신(연합뉴스)
12.1	독일, 평양 주재 자국 외교관 한 명 소환…미사일 도발 항의표시(연합뉴스)
	“폴란드, 北대사관에 불법입대 부지 반환요청…北대사에 서한”(연합뉴스)

<김정은 공개활동 동향>

보도일	보도내용	수행자	비고
11.28	새로 건설된 순천메기공장 현지지도	오수용, 박태성, 조용원	-
11.29	대륙간탄도로켓 《화성-15》형시험발사 지도	장창하, 전일호, 조용원, 유진	-

■ 주간 동향

1. 정치

가. 김정은 동향

2017. 11. 28.

■ 北 김정은, 양어장 시찰…“자력갱생 혁명정신 발휘”(연합뉴스)

-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평안남도 순천에 최근 준공된 메기공장(양어장)을 시찰했다고 북한 조선중앙방송이 28일 보도함.
- 방송에 따르면 연건축면적 2만 4천 120여㎡ 규모인 순천메기공장은 연간 1천 200t의 메기를 생산할 수 있으며, 순천화력발전소에서 나오는 폐수를 이용해 메기 생육에 필요한 온수를 공급함.
- 김정은은 “못들 마다에 메기들이 욱실거리고 있는 것을 보니 정말 기분이 좋다”며 “공장에서 야심만만한 목표를 세우고 생산 정상화의 불길을 세차게 지피 올려야 한다”고 말했으며, 아울러 “도내 인민들이 공장 건설을 통하여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발휘하면 못해낼 일이 없고 세상이 보란 듯이 더욱 잘살 수 있다는 것을 다시금 폐부로 절감하였다고 한다는 데 신심이 백배해진다”고 밝힘.

2017. 11. 29.

■ “용감히 쏘라”…김정은, 이번에도 미사일 발사 ‘친필명령’(연합뉴스)

-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은 최근 주요 핵·미사일 도발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5형’ 발사도 친필명령을 통해 직접 지시한 것으로 나타남.
- 조선중앙TV는 29일 “김정은 동지께서 11월 28일 새로 개발한 대륙간탄도로켓 화성-15형 시험발사를 단행할 데 대하여 친필명령하셨다”며 김 위원장이 서명하는 모습과 서명이 된 문건 사진을 공개함.
- 중앙TV에 공개된 ‘대륙간탄도로켓 화성-15형 시험발사 준비를 끝낸 정형보고’라는 제목의 군수공업부 문건 사진에는 김정은이 “시험발사 승인한다. 11월 29일 새벽에 단행!”이라고 적은 뒤 “당과 조국을 위하여 용감히 쏘라!”라면서 “김정은 2017.11.28.”이라고 서명한 내용이 확인됨.

■ **北 김정은 “핵무력 완성 실현 뜻 깊은 날…위대한 승리”(연합뉴스)**

- 중앙통신은 이날 “11월 29일 대륙간탄도로켓(ICBM) ‘화성-15’형 시험발사가 성공적으로 진행되었다”라며 “김정은 동지께서 ‘화성-15’형 시험발사 전 과정을 현지에서 몸소 지도하시었다”라고 밝혔으며, 통신은 “최고영도자(김정은) 동지께서는 새로 개발한 ‘화성-15’형의 단번 성공에 기쁨을 금치 못하시면서 만족에 대만족이라고, 새형(신형)의 로켓 무기체계 개발에 참가한 전체 전투원들에게 자신의 뜨거운 감사를 드린다고 격정에 넘쳐 말씀하시었다”고 전함.
- 김정은 위원장은 “오늘은 국가 핵무력 완성의 역사적 대업, 로켓 강국 위업이 실현된 뜻깊은 날”이라며 “우리 공화국의 전략적 지위를 더 높이 올려세운 위대한 힘이 탄생한 이 날을 조국청사에 특기하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으며, 그러면서 “최근 국방과학 부문을 비롯하여 나라의 모든 부문에서 일어나는 눈부신 성과는 조선노동당이 선택한 병진노선과 과학중시 정책의 빛나는 결실, 영웅적 조선 인민만이 이룩할 수 있는 위대한 승리”라고 주장하며 ‘화성-15’ 개발자들과 기념사진을 찍었음.
- 통신은 “이번 시험발사는 새로 개발한 ‘화성-15’형 무기체계의 전술·기술적 제원과 동작 믿음성을 확정하는 데 목적을 두고 최대 고각발사체제로 진행했다”면서 “특히 중간 비행구간 자세조종 및 속도 교정에 의한 명중성, 추진력 벡터조종을 실현한 대출력 발동기(엔진)와 비추진력이 높은 발동기의 동작 정확성이 확증되었으며 그에 따르는 유도 및 안정화 체계 설계 정수들의 정확성이 검증되었다”고 설명했으며, 통신은 “이미 확증된 조종 및 안정화 기술, 계단분리 및 시동 기술, 재돌입(재진입) 환경에서 전투부(탄두부)의 믿음성들을 재확증했다”라며 ICBM의 대기권 재진입 기술을 확보했음을 시사함.

■ **北, 국가핵무력 완성 선포…“신형 ICBM 화성-15 발사 성공”(연합뉴스)**

- 북한은 29일 낮 ‘중대보도’를 통해 발표한 정부성명에서 “조선노동당의 정치적 결단과 전략적 결심에 따라 새로 개발한 대륙간탄도로켓 화성-15형 시험발사가 성공적으로 진행됐다”고 밝혔다고 조선중앙방송이 전함.
- 이날 발사를 직접 지시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은 사실상 국가핵무력 완성을 선포했는데, 성명은 “김정은 동지는 새 형의 대륙간탄도로켓 ‘화성-15’형의 성공적 발사를 지켜보시면서 오늘 비로소 국가핵무력 완성의 역사적 대업, 로켓 강국위업이 실현되었다고 긍지 높이 선포했다”고 전함.
- 성명은 “대륙간탄도로켓 화성-15형 무기체계는 미국 본토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초대형 중량급 핵탄두 장착이 가능한 대륙간탄도로켓”이라며 “지난 7월에 시험 발사한 화성-14형보다 전술 기술적 재원과 기술적 특성이 훨씬 우월한 무기체계”라고 주장함.

나. 주요 엘리트 및 간부 동향

2017. 11. 26.

■ 北 리종혁 “美외는 오직 핵으로 힘의 균형 이뤄야”(연합뉴스)

- 리종혁은 지난 21일부터 23일까지 터키에서 열린 아시아의회의에 북한대표단 단장으로 참석해 연설을 통해 “우리가 핵을 틀어쥐으로써 아시아태평양지역에 대한 지배권을 확립해보려는 미국의 야망이 분쇄되고 조선반도와 지역의 평화와 안전이 수호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26일 전함.
- 그는 “미국과는 오직 핵으로 힘의 균형을 이룩하여 맞서야 한다는 것이 전체 조선 인민의 단호한 선택”이라며 “우리의 핵억제력은 폭제의 핵을 제압하는 정의의 보검이며 우리에게 대한 침략과 도발에 가담하지 않는 한 아시아와 세계의 어느 나라도 우리의 위협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밝힘.
- 그는 이어 “우리 군대와 인민은 자주의 기치, 자력갱생 기치 드높이 자기의 힘을 더욱 강화하여 미국의 무모한 핵전쟁 도발책동과 제재압살 책동을 단호히 짓부셔버릴 것”이라며 “조선반도와 아시아의 평화를 수호하고 국제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서 자기의 사명을 다해나갈 것”이라고 주장함.

2017. 11. 27.

■ 北 김영남, 이집트에 위로 전문…“온갖 형태 테러에 반대”(연합뉴스)

- 북한의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최악의 테러로 수백 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이집트에 위로 전문을 보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7일 보도함.
- 김 상임위원장은 26일 압텔 파타 엘시시 이집트 대통령에게 보낸 전문에서 “귀국에서 일어난 테러 사건으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였다는 슬픈 소식에 접하여 당신과 당신을 통하여 귀국 정부와 인민, 피해자 유가족들에게 깊은 동정과 위문을 표시한다”고 밝혔다고 중앙통신은 전함.
- 특히 “반테러전의 미명하에 감행되는 국가테러 행위와 테러분자들에 대한 비호·두둔, 지원을 비롯한 온갖 형태의 테러와 지원을 반대하는 우리는 이번에 귀국에

서 일어난 테러행위를 나라의 안정을 파괴하고 이집트 인민의 발전을 가로막아 보려는 비열한 행위로 강력히 규탄한다”고 덧붙였다.

다. 주요 기관 행위

■ 특이사항 없음

라. 주요 논조 및 성명

2017. 11. 28.

■ 北 “올림픽기간 도발설, 황당무계 억지주장”(연합뉴스)

- 북한 외무성 미국연구소의 조철수 공보실장은 이날 발표한 담화에서 “최근 미국과 서방의 일부 정책연구기관들과 언론들이 우리가 미국과 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무차별적인 핵 공격을 진행하려 한다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내돌리고 있다고 밝힘.
- 그는 “우리가 평창 올림픽경기대회 기간에 남조선에 대한 핵 타격을 계획하고 있다느니, 다가오는 크리스마스를 계기로 탄도로켓 시험발사를 통한 특대형 도발을 할 수도 있다느니 하는 무근거한 억측까지 여론화하고 있다”고 비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함.
- 조철수 실장은 “미국과 서방의 일부 정책연구기관들과 언론들이 내돌리는 상기 주장은 이미 천명된 우리의 강경 입장들을 왜곡하여 우리 국가를 악마화 해보려는 중상이며 황당무계한 억지 주장”이라고 말함.

2017. 11. 30.

■ 北 신문 “11월 29일은 핵무력 완성 이룩된 역사적인 날”(연합뉴스)

- 노동신문은 이날 2면에 게재한 ‘만세 만세 만만세!’ 제목의 정론에서 “11월 29일, 이날은 모진 난관과 시련의 언덕을 넘고 넘어 국가핵무력 완성의 대업이 이룩된 민족적 대경사의 날, 역사적인 날”이라고 주장함.
- 이어 “2017년은 로켓 사변의 해라고 부를 만큼 거창한 날과 달의 연속이었다”며 화성-12, 화성-14형 미사일 발사와 제6차 핵실험 등을 거론하고 “우리의 로켓 신화는 최악의 조건에서 비상한 힘을 기울여 최상의 성과를 창조한 불패의 신화”고 자찬했으며, 이 신문은 또 ‘조국청사에 길이 빛날 민족의 대경사, 위대한 조선

인민의 대승리'라는 제목의 1면 사설에서도 '화성-15'형 미사일의 성공을 '국가 핵무력 완성의 역사적 대업 실현'으로 평가하면서 "주체 조선의 강대한 국력을 힘있게 과시한 기세로 사회주의 강국 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새로운 비약과 혁신을 일으켜야 한다"고 독려함.

- 사설은 "자력자강의 창조대전으로 올해 전투를 빛나게 결속하고 다음 해 전투를 위한 만단의 준비를 갖추어야 한다"며 "공화국 창건 70돌이 되는 다음 해의 보다 큰 승리를 위한 준비를 튼튼히 갖추기 위한 연속공격전을 드세차게 벌여나가야 한다"고 촉구하면서 "사회주의 강국건설의 기본전선인 경제전선에서 자력자강과 과학기술의 위력으로 증산투쟁, 창조투쟁, 생산돌격전을 맹렬히 벌이며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고지를 점령해나가야 한다"고 주장함.

■ 조선신보 "北 핵무력 완성, 평화 경제부흥 담보"(연합뉴스)

- 조선신보는 30일 '새형의 ICBM '화성-15'형 시험발사 성공의 의의'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평화와 경제부흥을 담보한 핵무력 완성선언'을 부제목으로 단 뒤 "이제는 미국 본토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ICBM(대륙간탄도미사일)을 보유함으로써 경제 건설의 전제인 나라의 평화를 더욱 굳건히 지킬 수 있게 되었다"고 강변함.
- 신문은 "미국이 부정한다 해도 조선의 수소탄과 ICBM은 없어지지 않는다"라며 "교전 상대의 인정 여부는 큰 문제가 아니다. 조선의 입장에서는 핵과 로켓이 미국의 전쟁 도발을 억제하는 힘으로 기능하면 된다"고 밝힘.
- 이어 "조선에 있어서 완성된 국가 핵무력은 인민들이 자주적인 행복한 삶을 누려갈 수 있게 하는 정의의 보검이다. 그러니만큼 그것은 흥정물로 될 수 없다"라며 "더는 되돌릴 수 없는 불가역적인 핵무력 완성 선언이 조선에서 나온 것만큼 트럼프 행정부는 종래의 '최고의 압박' 노선이 몰아올 후과(결과)에 대해 심사숙고하고 처신을 바로 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함.

2. 군사

가. 군사 및 핵미사일

2017. 11. 29.

■ 北, 75일만의 미사일도발...ICBM급 동해상으로 발사(연합뉴스)

- 북한이 29일 새벽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으로 추정되는 장거리 탄도미사

일 1발을 발사함.

- 이번 미사일은 고각으로 발사되어 고도가 4천 500km에 달해 정상적으로 발사하면 사거리가 1만km 이상일 것으로 분석됨.
- 합동참모본부는 “오늘 오전 3시 17분경 북한이 평안남도 평성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장거리 탄도미사일은 고도 약 4천 500km, 예상 비행거리는 약 960km”라고 밝힘.

■ “역대최장 北미사일, 워싱턴도 사거리…2단추진체 개량한 듯”(연합뉴스)

- 북한이 29일 발사한 미사일은 미국 수도 워싱턴DC까지 도달할 수 있는 ‘화성-14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로 보인다고 미국의 전문가들은 분석했는데, 특히 이번 미사일은 2단 추진체 능력이 종전보다 향상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다수의 전문가가 입을 모았음.
- 미국 비영리 과학자단체인 ‘참여과학자모임’(UCS)의 물리학자 데이비드 라이트는 UCS 사이트에 올린 글에서 미사일의 도달 고도가 4천 500km를 넘고 비행거리는 1천km에 가까운 것으로 평가된 점을 근거로 북한의 역대 최장거리 미사일로 보인다고 밝혔으며, 그는 “이 미사일은 고각(高角)으로 각각 37분과 47분을 날았던 이전의 장거리 미사일 시험보다 두드러지게 사거리가 길다”면서 “이런 미사일은 워싱턴DC에 충분히 도달하고도 남을 것”이라고 주장함.
- 제임스 마틴 비확산연구센터(CNS)의 연구원 시어 코튼은 “이번 시험 발사와 관련한 수치들이 정확하다면 북한은 미국에 워싱턴DC와 미국 동부 해안의 상당 지역이 사거리 내에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라고 평가했지만, 그는 북한이 아직 대기권 재진입 기술은 확보하지 못했다고 덧붙임.

■ 北, 재진입 기술확보 불확실…“핵무력완성 주장 선전용” 관측도(연합뉴스)

- 북한이 29일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5형’을 발사한 것과 관련, 국가핵무력 완성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 군 관계자들은 현재 북한의 기술적 수준으로 판단할 때 그 단계까지는 아니라는 반응을 보였는데, 군의 한 전문가는 “북한이 ICBM을 개발하는 과정을 볼 때 현재 대기권 재진입 기술을 완전히 확보한 것으로 평가할 수 없다”면서 “대기권 재진입 기술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국가핵무력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선전용”이라고 말했으며, 정영근 한국항공대학교 교수는 “대기권 재진입 때 탄두의 정밀 유도제어와 화학적 식마 기술을 검증할 방법은 없다”면서 “재진입 기술을 검증하려면 정상 궤도로 발사해야 하는데

- 이번에도 고각으로 발사한 것을 보면 재진입 기술은 성공하지 못했을 것으로 본다”고 말함.
- 다만, 북한은 화성-15형 발사로 ICBM 기술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킨 것으로 군과 정부 당국자들은 평가하고 있으며, 국가정보원장은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그동안 세 번에 걸쳐 발사된 ICBM급 중에 (이번이) 가장 진전된 것으로 평가한다”며 “기존 화성-14형보다 최대 고도와 속도가 높다는 점에서 개량한 ICBM급일 가능성으로 추정”한 것으로 알려짐.
 - 전문가들도 화성-15형의 시험 발사는 최대 비행 거리 및 대기권 재진입 시험의 막바지 단계일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하는데, 북한이 이날 새벽 평남 평성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고각 발사한 이 미사일은 53분간 고도 4천 475km까지 올라갔다가 950km를 비행했으며, 2단 로켓에 탄두를 장착한 것으로 보이는 이 미사일은 고도만으로 놓고 보면 가장 높이 날았기 때문에, 북한이 이번에 ICBM급 사거리를 갖춘 ‘화성-15형’의 최대 비행 거리와 재진입 시험을 위해 2단 로켓 엔진 성능을 개선해 추력을 최대로 끌어올렸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되고 있음.

2017. 11. 30.

■ 北 ‘화성-15’ 1단에 ‘쌍둥이 엔진’ 장착…추력 2배 커져(연합뉴스)

- 북한이 29일 발사한 2단 형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5형’의 1단에 같은 형태의 2개짜리 ‘쌍둥이 엔진’을 탑재해 추력을 2배 이상 증강하는 등 진전된 기술력을 보인 것으로 분석됐는데, 정보당국의 한 소식통은 “북한이 ICBM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엔진 문제는 완전히 극복한 것으로 평가한다”면서 “이런 속도라면 대기권 재진입 기술도 곧 확보가 가능한 상태이며, 미국은 이런 현재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으며, 군의 한 전문가는 “화성-15형에 대한 초기 분석 단계이지만, 엔진 등의 기술력에서 진전을 이뤘다”면서 “1단 엔진, 동체 길이와 모양, 직경, 1·2단 결합 방식 등을 볼 때 그간 파악되지 않았던 신형 미사일”이라고 설명함.
- 장영근 한국항공대 교수는 “1단에 RD-250을 모방 생산한 쌍둥이 엔진을 달았다”면서 “1단 엔진의 추력은 80tf로 분석된다”고 말했으며, 그는 “쌍둥이 엔진의 터보 펌프는 공유되는 것으로 보인다”며 “1단과 2단의 직경이 동일해 추진체 양도 동일하게 많이 넣었을 것이다. 이 때문에 추력이 2배 이상으로 증강한 것”이라고 설명함.
- 장영근 교수는 “1단에 방향을 제어하는 보조엔진을 달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면서 “보조엔진을 달지 않고 미사일의 방향제어를 기술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엔진 노즐을 회전식으로 만들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는데, 엔진 노즐이 회전하면서 미사일의 방향을 제어하도록 하는 기술력을 확보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임.

■ **미언론 “北, SLBM 북극성-3형 완성단계…조만간 발사실험”(연합뉴스)**

- 도쿄신문은 30일 중국발 기사에서 ‘북한 군수 부문에 가까운 관계자’를 인용해 북한의 신형 SLBM 북극성-3형이 완성 단계에 가까지고 있어서 조만간 발사 실험이 실시될 예정이라고 보도함.
- 이 관계자는 북극성-3형이 현재 건조 중인 신형 잠수함에 2기가 탑재될 수 있도록 북극성-1형보다 동체가 얇아졌다는 정보가 있다고 덧붙임.
- 도쿄신문은 북한이 이외에도 전자기기의 파괴와 오작동을 유발하는 전자기펄스(EMP) 폭탄의 개발도 표명했다며 위협 수준이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고 우려함.

■ **‘화성-15형’ 사진 본 美전문가들…“정말 큰, 신형 엔진 미사일”(연합뉴스)**

- 전문가들은 특히 북한이 지난 7월 발사한 ICBM급 ‘화성-14형’에 비해 규모가 커졌고, 신형 엔진을 장착했다는 점에 주목했는데, CNN방송과 NBC뉴스 등에 따르면 제임스마틴 핵무기확산방지 연구센터(CNS)의 마이클 뒤즈먼 연구원은 “단지 ‘북한’ 미사일로서 크다는 수준이 아니라, 일반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도 매우 큰 미사일”이라고 말했으며, “화성-14형에 비해 특히 2단 추진체의 너비가 훨씬 넓다”며 “이 정도 크기의 미사일을 만들고 작동시킬 수 있는 나라는 많지 않다”고 설명함.
- CNS의 협동연구원 데이비드 슈멀러는 “북한의 주장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어제 미사일 시험은 핵폭탄 무게와 같은 모형 탄두를 장착해 실시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으며, “북한은 미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미사일을 원했는데, 화성-15형은 그 첫 단계인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으며, 화성-15형이 보조엔진 없이 두 개의 엔진을 탑재한 것으로 보인다고 이는 이전에는 북한에서 보지 못했던 것으로 ‘큰 변화’라고 평가했는데, 이는 화성-14형은 보조엔진 4~6개를 달아 방향을 조정했다면, 화성-15형은 주 엔진 자체의 각도를 조정해 방향을 조정하는 짐벌(gimbal) 시스템을 도입했다는 것임.
- 참여과학자연대(UCS)의 미사일 전문가인 데이비드 라이트 박사도 “1단계 엔진

은 화성-14형과 본질적으로 동일한 것으로 보이지만, 2단계 엔진은 (화성-14형에 비해) 2배 이상의 추진체 운반이 가능해보인다”면서 “이 둘을 합치면 정말로 새롭고 유능한 미사일이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으며, 미 국방정보국(DIA) 분석관 출신인 조지프 버뮤데즈 38노스 선임연구원은 “화성-15형의 앞부분이 기존보다 더 뭉툭해졌다”면서 “이는 재진입 기술의 진전으로 보인다”고 말함.

나. 한국 및 미국

2017. 11. 29.

■ 北, 평남 평성서 동해로 탄도미사일 발사·軍, 정밀타격훈련(연합뉴스)

- 북한이 29일 오전 3시 17분께 평안남도 평성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힘.
- 한미 군 당국은 북한이 최근 미사일 기지에서 추적 레이더를 가동하고 통신활동이 급증한 정황을 포착하고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임박했음을 평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 합참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에 대응해 오늘 오전 3시 23분께 동해상으로 적 도발 원점까지의 거리를 고려해 지·해·공 동시 탄착개념을 적용한 미사일 합동 정밀타격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으며, 합참은 “현재 우리 군은 북한군의 추가도발에 대비해 감시 및 경계를 강화한 가운데 한미 간 긴밀하게 공조하면서 만반의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함.

■ 국제사회, 北미사일 규탄에 한목소리…“세계평화 위협”(연합뉴스)

-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9일 오전 8시 30분부터 20분간 전화통화를 갖고 이같이 의견을 교환했다고 청와대가 밝혔으며, 두 정상은 굳건한 한미 방위태세를 토대로 북한의 도발에 강력하고 단호하게 대응하고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의하면서 제재와 압박을 계속함으로써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기로 함.
-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북한의 도발은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킬 뿐 아니라 국제평화와 안전을 중대하게 위협하는 행위”라고 비판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해 “우리가 다뤄야 할 상황”이라며 “우리가 처리하겠다”고 말함.

- 일본 정부는 이날 새벽 6시를 조금 넘긴 시간에 NSC를 개최해 정보 수집과 대응 방안을 논의했으며, 한·미·일 3개국은 북한의 미사일 도발 직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긴급회의 소집을 요청함.

■ '북한의 장거리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정부 성명' 전문(연합뉴스)

- 정부는 29일 '정부 성명'을 통해 북한의 이날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력 규탄하고 북한 도발에 대한 단호한 대응 의지를 밝혔으며, 다음은 정부 성명 전문임.

『북한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정부 성명

1. 북한은 오늘(11.29) 또다시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감행하였다. 북한의 반복적인 도발 행위는 한반도는 물론 국제평화와 안전에 대한 중대한 위협으로, 정부는 북한이 한반도 긴장완화와 평화구축을 위한 우리의 진정성 있는 노력을 외면한 채 무모한 도발을 통해 긴장을 지속 고조시키고 있음을 강력히 규탄한다.
2. 북한은 지금이라도 도발을 통해 얻는 것은 외교적 고립과 경제적 어려움 뿐이며, 핵·미사일 개발 포기만이 자신의 안보와 경제 발전을 보장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3. 정부는 북한이 더 이상 긴장을 고조시키는 어떠한 행위도 중단하고, 한반도 평화정착과 비핵화를 향한 국제사회의 단합한 목소리에 호응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
4. 정부는 앞으로도 강력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바탕으로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다. 또한, 긴밀한 한미 공조를 통해 우리의 대북 억지력을 지속 강화하면서, 한 치의 빈틈도 없이 대한민국의 안보와 국민의 생명을 지켜나갈 것이다.』

3. 경제

가. 정책 및 주요조치

- 특이사항 없음

나. 경제 실태

- 특이사항 없음

다. 대외 경제 관계

- 특이사항 없음

4. 사회문화

가. 공식 발언 및 주요조치

- 특이사항 없음

나. 시장관련

- 특이사항 없음

다. 각종 단속 및 검열

- 특이사항 없음

라. 사회 동향

2017. 11. 25.

- **北, 임진강 수계에 댐 건설...이천군민발전소 공사중(연합뉴스)**

-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5일 ‘언제(댐) 공사 적극 추진’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이천 군민발전소 건설에 떨쳐나선 일꾼들과 건설자들이 발전소 언제 공사에서 전례 없는 위훈을 창조해나가고 있다”고 전함.
- 신문은 “(강원)도에서 건설하는 이천 군민발전소는 임진강으로 흐르는 물을 막아 전력을 생산할 수 있게 하는 발전소로서, 이 발전소 건설이 완공되면 전력 문제가 더 원만히 해결되어 경제 발전과 인민생활 향상에 크게 이바지하게 된다”고 밝힘.
- 신문은 “건설자들은 공사가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는 기간에 언제 좌안 암반기초 굴착을 끝낸 기세를 늦추지 않고 기초 콘크리트 치기 전투를 힘있게 벌여 성과를 거두고 있다”며 댐 건설이 이미 전부터 시작됐음을 시사함.

2017. 11. 30.

■ 北, ‘핵무력 완성’ 경축 분위기 조성…“방방곡곡 감격·환희”(연합뉴스)

-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5’형 미사일 시험발사로 ‘핵무력 완성’을 이뤄냈다고 강조하며 주민들을 동원해 대대적인 경축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는데,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9일 자 신문 6개 면 중 5개 면을 ‘화성-15’형 시험발사 관련 기사와 사진으로 채운 데 이어 30일 자에서도 발사를 자축하는 사설과 정론, 주민·간부들의 반응 기사에 4개 면을 할애했으며, 신문은 30일 ‘국가핵무력 완성의 역사적 대업, 로켓강국 위업을 빛나게 실현한 민족사적 대경사’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온 나라 방방곡곡은 크나큰 감격과 환희로 세차게 끓어번졌다”고 주장함.
- 노동신문과 조선중앙통신 등 북한 매체들은 이번 발사에 환호하는 주민들의 반응을 29일 오후부터 잇따라 보도하고 있는데, 노동신문은 ‘화성-15’형 발사를 알린 ‘중대보도’ 당시 평양역과 평양 지하철 전승역, 교육위원회 등에 있던 주민들의 환호 분위기를 자세히 전함.
- 북한은 이번 발사로 국가핵무력 완성이 실현됐다는 것을 부각하며 이를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업적으로 내세우는 데도 주력했는데, 박광호 당 부위원장은 노동신문 1면 기고를 통해 “새형의 대륙간탄도로켓을 보유하게 된 것은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것처럼 바라시던 국가핵무력 완성의 역사적 대업, 로켓강국 위업의 실현을 온 세상에 선포한 특기할 사변”이라고 주장하면서 아울러 “최후 승리의 진로를 열어나가는 경애하는 최고 영도자(김정은) 동지의 탁월한 영도의 빛나는 결실”이라고 주장함.

5. 외교국방

가. 북·미 관계

2017. 11. 30.

■ 틸러슨 “재무부 추가제재”…백악관 “대북제재 곧 발표”(연합뉴스)

- 새라 허커비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29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날 중 추가 대북 제재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공언한 것과 관련, 제재안을 “곧(very shortly) 발표할 것”이라고 말함.
- 샌더스 대변인은 이날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대통령은 앞서 우리가 북한에

대해 최대의 압박을 계속하고, 추가제재를 보태고 늘릴 것이라고 말했다”면서 이같이 밝힘.

- 렉스 티러슨 국무부 장관도 이날 트럼프 대통령 발언과 관련, 재무부가 금융기관에 대한 추가제재를 내용으로 하는 독자적인 대북 제재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으며, 티러슨 장관은 국무부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는 잠재적 추가(대북) 제재에 대한 긴 목록을 갖고 있다”면서 “그것 중 일부는 잠재적인 금융기관들이 포함되고 재무부가 내용을 준비가 되면 발표하게 될 것”이라고 말함.

■ 헤일리 “北완전파괴…대북 원유중단·외교관계 단절해야”(연합뉴스)

-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북한이 ‘화성-15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쏜 다음 날인 29일(현지시간)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안전보장이사회 긴급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시 주석에게 대북 원유공급을 중단해야 한다는 뜻을 전했다”고 밝힘.
- 헤일리 대사는 북한을 “국제적인 왕따”(international pariah)라고 지칭하면서 원유 금수는 “(북한의 도발을) 멈추게 하기 위한 중추적 단계가 될 것”이라고 강조함.
- 그러면서 “북한의 주요 원유공급원인 중국은 지난 2003년 원유공급을 중단했고 곧이어 북한은 협상 테이블로 나왔다”면서 “우리는 중국이 더 많은 역할을 하기를 원한다”고 중국을 압박함.

나. 북·중 관계

2017. 11. 28.

■ 北, 장진호 전투전사도 고쳐…중국군 아닌 조선인민군 참여로(연합뉴스)

- 북한은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특사인 쑹타오(宋濤) 공산당 대외연락 부장이 귀국한 직후 북중관계의 역사적 사실까지 고치면서 중국에 불만을 표시한 것으로 보임.
- 28일 중화권매체인 뉘웨이(多維)에 따르면 북한의 공식 포털 사이트인 ‘내나라(www.naenara.com.kp)’는 지난 22일 장진호 전투는 1950년 11월 한국전쟁 당시 조선인민군이 장진호에서 북진하던 미군 제10군단과 맞붙어 승리한 전투라고 소개함.
- 그러나 장진호 전투의 역사적 진실은 중국 인민지원군 제9병단이 장진호 계곡을

벗어나려던 미군 제10군단을 포위하고 공격한 싸움으로 조선인민군은 참여하지 않았다고 뒤웨이는 지적함.

다. 북·일 관계

■ 특이사항 없음

라. 북·러 관계

2017. 11. 27.

■ 러 차관, 北노동자 수용중단 “안보리 결의대로 반드시 할 것”(연합뉴스)

- 러시아 측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인 이고리 모르굴로프 외무차관은 27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에 명시된 북한 노동자 신규 수용 중단 등을 결의 내용에 따라 반드시 이행하겠다고 밝힘.
- 모르굴로프 차관은 이날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한·러 6자회담 수석대표 협의와 정책협의회를 각각 진행한 뒤 연합뉴스 기자와 따로 만난 자리에서 러시아 내 북한 노동자 고용 문제에 대한 질문에 “안보리 결의에 따라 우리는 그 관행을 없애야 한다”며 “그래서 우리는 안보리 결의에 따라서 반드시 그것(결의 이행)을 할 것”이라고 말함.
- 모르굴로프 차관은 또 북한 노동자 관련 안보리 제재의 이행 시기에 대해 “안보리 결의에 타임 테이블(시간표)은 없다”며 “우리는 정확히 결의에서 요구하는 대로 할 것”이라고 강조함.

2017. 11. 29.

■ 러시아 “北 탄도미사일 발사 심각히 우려…도발 행위”(연합뉴스)

- 러시아 외무부는 29일(현지시간)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관련한 공보실 명의의 논평을 통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관련 결의를 위반한 북한의 또 다른 탄도미사일 발사는 심각한 우려를 불러일으킨다”고 비난함.
- 외무부는 이어 “한반도 주변 지역에서 미국과 그 동맹국들이 최근 몇 달 동안 지속해서 적극적인 군사 활동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모든 관련국은 서로를 도발하지 않고 자제력을 보이며 추가적 긴장 고조를 야기할 어떠한 새로운 행보도 허용하지 않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북한뿐 아니라 한미 당국의

자제도 주문함.

- 그러면서 “북한은 핵·미사일 시험을 중단하고 미국과 한국은 오는 12월 초로 예정된 규모 면에서 유례없는 비정례 공군 훈련을 중지할 것을 간곡히 호소한다”며 “이 훈련은 그러잖아도 폭발 위험이 있는 정세를 더 악화시킬 것”이라고 경고했으며, 외무부는 북한의 새로운 미사일 도발에도 “한반도 문제 해결에 대한 러시아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면서 “모든 문제의 장기적이고 상호 수용 가능한 해결 방안의 효율적 모색은 집요하고 적극적인 정치·외교적 노력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이 그것”이라고 설명함.

마. 북·기타국가 관계(국제기구 포함)

2017. 11. 25.

■ 쿠바 카스트로 의장, 北외무상 접견...“국제적 상호 관심사 논의”(연합뉴스)

- 라울 카스트로 쿠바 국가평의회 자국을 방문한 리용호 북한 외무상을 만나 상호 관심사를 논의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현지 언론을 인용해 24일(현지시간) 보도함.
- 쿠바 국영 TV는 이날 정오 뉴스에서 “양측은 형제적인 만남을 통해 역사적으로 중요한 양국 우호 관계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서로 관심이 있는 국제적인 주제를 논의했다”고 전함.
- 이날 접견에 앞서 브루노 로드리게스 쿠바 외교부 장관과 리 외무상은 지난 22일 면담 후 공동 성명을 내 미국의 일방적인 대북제재를 비난하고 한반도 문제의 평화 해법을 촉구함.

■ 北, 아셈 외교장관회의의 성명 비난...“존엄에 정면 도발”(연합뉴스)

- 북한은 25일 조선중앙통신사 논평에서 “아시아와 유럽의 외교 거두들이 모여앉은 아셈 외교장관회의가 우리 제도의 실상과 조선반도의 현실에 대한 심한 무지와 편견으로 가득 찬 의장성명을 채택한 것은 우리 공화국의 자주권과 존엄에 대한 정면 도발”이라고 비난함.
- 논평은 이어 “회의 참가국들이 조선반도 핵 문제의 근원과 정세 악화의 책임이 미국에 있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현실을 고의로 외면하고 왜곡했다”며 “제재 결의의 효과적이고 포괄적인 이행’을 운운한 회의 참가국들은 미국의 반인륜적, 반문명적인 대조선 제재·압박 소동에 편승한 법적 책임에서 절대로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함.

- 그러면서 “우리 공화국은 그 누가 인정하든 말든 세계적인 핵보유국으로서 미국의 핵 위협을 근원적으로 종식하고 조선반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기 위하여 정의의 핵을 더욱 억세게 틀어쥐고 이미 선택한 길로 힘차게 줄달음쳐나갈 것”이라고 덧붙임.

2017. 11. 27.

■ **北, 아프리카 지원史 부각…美 ‘대북압박 동참요구’ 대응?**(연합뉴스)

- 미국이 최근 아프리카 국가들에 대북 압박 강화를 촉구하는 가운데 북한이 공식 매체를 통해 과거 김일성 시대의 대(對)아프리카 지원 역사를 부각함.
-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7일 기사에서 “수령님(김일성)께서는 새 사회 건설을 위한 아프리카 나라들의 투쟁에 물심양면의 아낌없는 지원을 주셨다”며 토고, 탄자니아 등에 대한 북한의 지원 사례를 소개함.
- 신문은 “결코 그때 우리나라가 남들보다 돈이 많고 풍족하여서 아프리카 나라들을 도운 것이 아니었다”며 “우리 인민은 허리띠를 졸라매면서도 수많은 식량과 원조물자를 굶주림과 빈궁 속에서 일떠서는 아프리카 인민들에게 보냈다”고 주장했으며, 기사 말미에 북한의 지원으로 아프리카 각국에 들어선 각종 공장과 농장, 국가 시설 등을 열거함.

■ **시리아 전후 재건사업에 北 ‘군침’…“양국, 협력 논의”**(연합뉴스)

- 27일 시리아 국영 사나통신 등에 따르면 리마 알카디리 시리아 사회노동장관은 이달 22일 다마스쿠스에서 장명호 북한대사를 만나 양자관계 발전과 재건사업 협력을 논의함.
- 카드리 장관은 이 자리에서 “시리아 국민은 북한이 시리아 편에 서준 데 매우 감사히 여기고 있다”며, 재건사업에 특별한 전문성을 가진 북한으로부터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함.
- 장 대사는 이에 북한이 건설과 장식에서 전문성으로 언제든 시리아 재건에 기여할 것이라고 화답했다고 통신은 전함.

2017. 11. 29.

■ **프랑스 “北 탄도미사일 발사 강력 규탄…제재 늘려야”**(연합뉴스)

- 프랑스 외무부는 29일 장 이브 르드리앙 장관 명의의 성명을 내고 “북한의 탄도

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비난한다”면서 “프랑스는 이런 위협의 최전선에 있는 한국과 일본에 대한 연대를 표한다”고 함.

- 이어 “여러 차례 강조했듯이 북한의 핵·탄도미사일 개발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으로, 비핵화 체제를 해치고 지역과 세계안보를 위협한다”면서 “그 어느 때보다도 제재와 압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신념을 재차 강조한다”고 덧붙임.
- 마크롱 대통령은 “북한의 무책임한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한다”면서 “북한에 대한 압박과 우리의 협력국들과의 연대를 늘려야 한다는 결의가 이번 일로 더욱 굳어졌다”고 말함.

■ 獨 “北 미사일 발사는 국제사회 위협”…北대사 초치(연합뉴스)

- 독일 정부는 29일(현지시간) 북한의 탄도 미사일 발사에 대해 강력히 비판하면서 독일 주재 북한 대사를 초치하기로 했는데, 지그마어 가브리엘 외무장관은 이날 성명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국제법 침해로, 이 같은 무자비한 행동은 국제사회 안보의 큰 위협”이라며 이 같이 밝힘.
- 가브리엘 장관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만장일치로 북한의 최근 미사일 발사와 핵 실험을 명백하게 비판했다”면서 “평양 체제는 최근 실험으로 지역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고 지적함.
- 그러면서 “우리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이런 위협을 명백히 반대한다”면서 “북한에 대한 압박을 증가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으며, “평화적인 방법이 유일한 길이고, 북한이 대화 테이블로 더 가깝게 오도록 해야 한다”고 함.

■ 伊 “北미사일 발사는 큰 위협…무책임한 정권에 압박 강화해야”(연합뉴스)

- 파올로 젠틸로니 총리는 29일 트위터에 “북한의 새로운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비난한다”며 “이탈리아는 무책임한 정권에 대한 국제 사회의 압박 강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힘.
- 안젤리노 알파노 외무장관은 성명을 통해 “북한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을 거듭 위반하며 지역 안정과 세계 평화와 안보에 심대한 위협을 가하고 있다”고 지적함.
- 그는 “북한 정권의 미사일 발사 재개와 핵무기의 지속적인 개발은 국제사회의 비확산 기조에 대한 공공연한 도전으로 (국제 사회에) 심각한 우려로 작용하고 있다”고 강조했으며, “북한 대사에 대한 신임장 부여 절차를 중단한 이탈리아의 결정이 정당하다는 것이 이번 일로 확인됐다”고 덧붙임.

2017. 11. 30.

■ **英, 北대사 초치해 미사일 발사 항의...대북 여행주의보 갱신(연합뉴스)**

- 영국 외무부가 29일(현지시간) 최일 북한 대사를 청사로 불러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항의했으며, 마크 필드 영국 외무부 아시아-태평양 담당 국무상은 성명을 통해 최 대사에게 북한의 미사일 시험에 대한 비난의 뜻을 분명히 밝혔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30일 전함.
- 필드 국무상은 “북한이 미사일 발사가 주민들의 안전과 번영을 위해서라고 주장했지만, 반대로 북한의 안전을 위협하고 고립을 심화시킬 뿐”이라고 비판하면서 “영국이 동맹국과 외교적 해결을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며 북한 정권은 불법적인 핵·미사일 개발을 포기하고 대화로 복귀하라고 촉구함.
- 또 영국 외무부는 전날 북한의 미사일 도발 직후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됐다는 점을 지적하며 자국민의 대북 여행주의보도 갱신함.

2017. 12. 1.

■ **독일, 평양 주재 자국 외교관 한 명 소환...미사일 도발 항의표시(연합뉴스)**

- 독일 정부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항의 표시로 평양 주재 독일대사관의 외교관 한 명을 소환하기로 했는데, 지그마어 가브리엘 독일 외무장관은 3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을 방문 중 이 같이 밝혔다고 슈피겔 온라인 등이 보도함.
- 가브리엘 장관은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부 장관을 만나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이란 핵 합의 문제 등을 논의하기 위해 이날 워싱턴을 찾음.
- 독일 정부의 이 같은 조치는 헤더 노어트 미국 국무부 대변인이 평양 주재 독일 대사의 철수를 요청한 이후 나왔으며, 대사를 소환하지 않았지만, 미국의 요구를 일부 수용하는 모양새를 취한 셈임.

■ **“폴란드, 北대사관에 불법임대 부지 반환요청...北대사에 서한”(연합뉴스)**

- 폴란드 외무부는 지난달 28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외교 부지에서서의 상업 임대행위를 끝내기 위해 반복적으로 조치했다며, 수도 바르샤바 주재 북한 대사관이 여전히 불법 임대행위를 계속하고 있다고 밝힘.
- 구체적으로 폴란드 외무부는 지난 14일 북한 대사 앞으로 서한을 보내 외교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부지 일부를 돌려달라고 요구했다고 VOA는 전했으며,

외무부는 이 서한에 대한 북한의 대응에 따라 추가적 조치를 고려할 것이라고 덧붙임.

- 폴란드 외무부는 아울러 이를 사용 중인 사업체에도 임차 행위를 근절해 달라고 촉구하는 서한을 보냈으며, 일부 회사들은 이미 계약 종료를 통보했거나 계약 해지 절차를 밟고 있다는 사실을 외무부에 알렸다고 VOA에 전함.

Ⅱ 동북아정세

1. 한반도정세

■ 개요

분류	일자	한국	미국
한미 관계	11.29	文대통령-트럼프 “北미사일 발사, 전세계에 심각한 위협”(연합뉴스)	
		한미외교장관 통화...“北 비핵화 모든 외교노력 경주”(연합뉴스)	
		외교부 “한미일 북핵수석대표, 강력한 제재·압박 의견일치”(연합뉴스)	
분류	일자	한국	중국
한중 관계	11.27	韓中 정부간 문화교류 재개...‘니하오! 리장 한중문화공연’ 개최(연합뉴스)	
	11.28	정부 “한중 인적교류 전면회복·교류협력 조속 활성화 기대”(연합뉴스)	中, 베이징·산둥성만 韓단체관광 허용...“롯데호텔·쇼핑은 불허”(연합뉴스)
		12.01	중국인 개별관광, 사드 금한령후 첫 증가 반전...지난주 12% 증가(연합뉴스)
분류	일자	한국	일본
한일 관계	11.29	文대통령-아베 총리, 北미사일 관련 통화...“한미일 연대 강화”(연합뉴스)	
	12.01	강경화, 이달 첫 방일 추진...대북공조·역사문제 논의(연합뉴스)	

분류	일자	한국	러시아
한러 관계	11.27	한·러 북핵 수석대표 협의...“상황 안정적관리 무엇보다 중요”(연합뉴스)	러 외무차관 “한·미 비정례훈련, 북핵 러시아 중재 어렵게 해”(연합뉴스)
	11.28	한·러 정책협의회 개최...“관계 빠른 속도로 발전”(연합뉴스)	
	11.29	한·러, 북극협의회 첫 개최...“북극항로 활용확대 협력”(연합뉴스)	

2. 주변국정세

■ 개요

분류	일자	미국	중국
미중 관계	11.29	미 상무부, 중국 알루미늄 반덤핑 조사...중국 “보복 따를 것”(미국의소리)	미, 안보리 긴급회의서 “중국에 원유공급 중단 요구...전쟁시 북 완전 파괴”(자유아시아방송)
	11.30	트럼프, 시진핑과 통화...“北비핵화 가용수단 총동원” 요구(연합뉴스)	
		위성통신서 美中 군장성들 비공개 회담...北사태 논의 주목(연합뉴스)	
		G2 무역갈등 심화하나...“美 中 ‘시장경제 지위’ 인정 거부”(연합뉴스)	中, 대북 원유공급 중단요구에 난색...기존 유엔결의 이행만 강조 (연합뉴스)

분류	일자	미국	일본
미일 관계	11.29	트럼프·아베 통화 “대북 압력강화…한미일 긴밀협력 방침 확인”(연합뉴스)	
		미일외교장관 통화…“北핵·미사일, 미일안보에 위협…용인못해”(연합뉴스)	
분류	일자	미국	러시아
미러 관계	11.25	러 외무 “北 핵실험 않은 2개월 동안 美가 北 자극한 것 우려”(연합뉴스)	
	11.29	러시아 의회, 北 미사일 발사 소식에 美·北 함께 비판(연합뉴스)	
	12.01	러, 쿠릴열도에 지대함미사일 배치 추진…美 견제용(연합뉴스)	
분류	일자	중국	일본
중일 관계	11.29	日 “中 해경선 3척, 센카쿠열도 영해 진입”(연합뉴스)	
분류	일자	중국	러시아
중러 관계		특이사항 없음.	
분류	일자	일본	러시아
일러 관계		특이사항 없음.	

■ 주간 동향

1. 한반도정세

가. 한·미 관계

2017. 11. 29.

■ **文대통령-트럼프 “北미사일 발사, 전세계에 심각한 위협”(연합뉴스)**

-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9일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시험발사에 대한 양국의 대응을 논의했다고 AP와 AFP 통신 등이 보도함.
- 백악관은 “양국 정상은 북한의 최근 미사일 발사가 미국과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에 심각한 위협을 가한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전함.
- 이어 “두 대통령은 북한의 무모한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개발 노력에 대한 강한 비난의 뜻을 재확인했다”면서 “이런 무기들이 단지 북한의 안보를 약화시키고 그들의 외교적, 경제적 고립을 심화할 뿐이라는 점을 언급했다”고 밝힘.

■ **한미외교장관 통화…“北 비핵화 모든 외교노력 경주”(연합뉴스)**

-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29일 오전 약 20분간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과 전화 통화를 갖고, 북한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관련 상황 평가 및 향후 대응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협의를 했다고 외교부가 밝힘.
- 외교부에 따르면 양 장관은 북한이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무모한 도발을 재개한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공유함.
- 또한 압도적 힘의 우위를 바탕으로 북한의 추가 도발을 억지하기 위해 한미 양국이 굳건한 대북 억지태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강력한 제재·압박을 포함,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모든 외교적 노력을 경주해나가기로 했다고 외교부는 전함.

■ **외교부 “한미일 북핵수석대표, 강력한 제재·압박 의견일치”(연합뉴스)**

- 한미일 3국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는 북한이 장거리 탄도 미사일을 발사한 29일 잇따라 진행된 대면 및 전화 협의에서 북한이 대화의 장으로 나올 수 있도록 강력한 제재와 압박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외교부가 밝힘.
- 외교부 당국자는 “현재 미국을 방문중인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오늘 새벽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직후 가나스기 겐지(金杉憲治)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과 긴급 전화 통화 및 조셉 윤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와의 면담을

하고, 이번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관련 상황 평가 및 향후 대응방안에 대해 협의했다”고 전함.

- 한미일 6자회담 수석대표들은 북한의 이번 도발이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킬 뿐 아니라 국제 평화와 안정을 중대하게 위반하는 행위라며 강력히 규탄했으며, 북한이 무모한 도발을 중단하고 대화의 장으로 나올 수 있도록 강력한 제재와 압박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당국자는 부연함.

나. 한·중 관계

2017. 11. 27.

■ 韓中 정부간 문화교류 재개…‘니하오! 리장 한중문화공연’ 개최(연합뉴스)

- 주한미군의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로 인한 갈등으로 중단됐던 한중 양국의 정부간 문화교류행사가 재개됨.
- 주중한국문화원(원장 한재혁)은 27일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중국 윈난(雲南)성 리장(麗江)에서 ‘니하오 리장, 한중 문화공연’ 행사를 개최함.
- 한재혁 원장은 중국 지방 성·시(省·市) 정부와 매년 2~3차례 문화교류 행사를 개최해왔으나 지난해 하반기 이후 중단상태에 있었다면서 이번에 리장시와 행사를 재개하게 됐다고 밝힘.

2017. 11. 28.

■ 中, 베이징·산둥성만 韓단체관광 허용…“롯데호텔·쇼핑은 불허”(연합뉴스)

- 중국의 관광 분야 주무부처인 국가여유국(國家旅游局)이 28일 회의를 통해 베이징(北京)과 산둥(山東) 지역에 한해 일반 여행사들에 한국행 단체관광을 허용함.
- 국가여유국은 베이징과 산둥 여행사에 한국행 상품을 판매할 때 롯데 호텔 숙박이나 롯데 면세점 쇼핑이 포함돼서는 안 된다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짐.
- 이번 단체관광 허용은 두 지역의 일반 오프라인 여행사만 해당되며, 전세기 운항이나 크루즈선의 정박 규제는 아직 해제되지 않음.

■ 정부 “한중 인적교류 전면회복 교류협력 조속 활성화 기대”(연합뉴스)

- 외교부는 중국이 베이징(北京)과 산둥(山東) 지역에 한해 일반 여행사들에 한국행 단체관광 상품을 팔 수 있도록 허용한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 “관련 소식에 주목하고 있다”며 “앞으로 양국 간 인적교류가 보다 전면적으로 회복되고, 여타 분야에서

의 교류협력 관계도 조속히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힘.

- 노규덕 외교부 대변인은 28일 정례 브리핑에서 “한중 간 인적교류는 양국 국민 간 우의 증대의 토대이자, 양국 관계 지속 발전의 밑거름”이라고 발언함.
- 노 대변인은 성주 골프장 부지를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부지로 제공한 롯데그룹의 계열 호텔과 면세점은 한국행 여행 상품에 포함하지 말도록 중국 정부 당국이 지시했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관련 보도는 추가로 확인이 필요할 것 같다”며 “사실 여부를 확인한 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라고 발언함.

2017. 12. 01.

■ **중국인 개별관광, 사드 금한령후 첫 증가 반전…지난주 12% 증가(연합뉴스)**

- 개별적으로 한국을 관광, 또는 방문하는 중국인 입국자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갈등으로 올해 중국 당국이 한국 단체관광을 금지한 금한령(禁韓令) 이후 8개월 만에 처음으로 상승세로 돌아섬.
- 베이징, 상하이 등 주중 공관에 따르면 지난 20~24일 주간 중국 전역 공관에서 한국 입국을 위해 개별 방문비자를 신청한 건수가 2만1천여 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12% 증가함.
- 한편 사드 갈등이 해소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한국 정부는 평창 동계올림픽을 전후 한 기간에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중국인 관광객에게 15일간의 무비자 입국을 허용키로 함.

다. 한·일 관계

2017. 11. 29.

■ **文대통령-아베 총리, 北미사일 관련 통화…“한미일 연대 강화”(연합뉴스)**

-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29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전화통화를 하고 “한미일간 연대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함.
- 두 정상은 통화에서 “핵·미사일 개발을 진행하는 북한에 대해 압력을 한층 강화하겠다”는 방침도 확인했다고 통신은 전함.

2017. 12. 01.

■ **강경화, 이달 첫 방일 추진…대북공조·역사문제 논의(연합뉴스)**

-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이달 중 취임 후 처음 일본을 방문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1일 알려짐.
- 복수의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강 장관은 지난달 29일 북한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후 전화 협의차 고노 다로(河野太郎) 일본 외무상과 통화를 할 때 자신의 일본 방문에 대해 논의했으며, 세부 일정을 외교 당국 간에 조율키로 뜻을 모은 것으로 알려짐.
- 강 장관은 방일시 진행할 고노 외무상과의 한일 외교장관 회담에서 위안부 문제를 포함한 역사 문제 논의와 기타 외교·안보·경제·문화 등에서의 협력을 병행하는 이른바 '투트랙 외교' 기조에 입각해 다양한 현안을 논의할 전망이다. 특히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5' 발사로 북핵 문제의 심각성이 한층 더 부각된 만큼 대북 공조 방안을 비중 있게 논의할 것으로 보임.

라. 한·러 관계

2017. 11. 27.

■ 한·러 북핵 수석대표 협의…“상황 안정적관리 무엇보다 중요”(연합뉴스)

- 한국과 러시아는 27일 서울에서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 협의를 열어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함.
- 외교부는 보도자료에서 “한·러 양측은 북한 핵·미사일 관련 현 상황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한·러 정상회담에서 정상간 재확인한 북핵 불용의 확고한 원칙 하에,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협력 방안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했다”고 밝힘.
- 외교부는 이어 “양측은 현재로서는 상황의 안정적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북한의 추가 도발을 억제하기 위해 공동의 노력을 지속하기로 하는 한편, 안보리 대북 제재의 충실한 이행을 포함,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이끌어 내기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함.

■ 러 외무차관 “한·미 비정례훈련, 북핵 러시아 중재 어렵게 해”(연합뉴스)

- 이고리 모르쿨로프 러시아 외무차관이 27일(현지시간) 2개월여 동안 이어진 북한의 핵·미사일 시험 중단과 같은 긍정적 신호에 미국이 비정례 군사훈련 등으로 강경 대응한 것이 ‘로드맵’(한반도 문제의 평화적·단계적 해결 방안)에 기초한 러시아의 한반도 위기 해결 중재 노력을 어렵게 하고 있다고 비판함.

- 타스 통신 등에 따르면 마르굴로프 차관은 이날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과 국제 러시아 전문가 모임인 모스크바 ‘발다이 클럽’이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공동 개최한 회의에 참석해 발표하며 이같이 주장함.
- 또한 “러시아는 북한의 핵·미사일 시험 중단이 가능한 오래 지속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미국, 북한과 별도로 로드맵 일부 내용에 대한 논의를 추진했지만, 지난 10, 11월에 이루어진 한·미 비정례 훈련이 이 같은 논의를 몹시 어렵게 하고 있다”고 유감을 표시함.

2017. 11. 28.

■ **한·러 정책협의회 개최…“관계 빠른 속도로 발전”(연합뉴스)**

- 윤순구 외교부 차관보는 27일 서울에서 이고르 마르굴로프 러시아 외교부 아태담당 차관과 제17차 한·러 정책협의회를 개최해 양국관계 발전 방향, 양국간 실질협력 증진 방안 등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다고 외교부가 28일 밝힘.
- 외교부에 따르면 양측은 올해 1~9월간 양국간 교역 규모가 전년 동기 대비 약 50% 증가하고, 인적교류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는 등 한·러 관계가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음을 평가하고, 한·러 전략적협력동반자 관계 선언 10주년을 맞는 내년에 양국간 긴밀한 협력이 지속되기를 희망함.
- 윤 차관보와 마르굴로프 차관은 양국 외교부 간 전략대화 등 고위 인사 교류, 6자회담 수석·차석대표 협의회 개최, 안보·영사·홍보 분야 및 주요 국제문제에 대한 협의 등의 내용을 담은 2018~19년 한·러 외교부 간 교류계획서에 서명함.

2017. 11. 29.

■ **한·러, 북극협의회 첫 개최…“북극항로 활용확대 협력”(연합뉴스)**

- 외교부는 29일 서울에서 제1차 한·러 북극협의회를 열어 북극 항로 활용 확대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힘.
- 양측 수석대표인 김영준 북극협력대표와 블라디미르 바빈 러시아 외교부 북극대사는 우리 정부가 신(新) 북방정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9개의 다리(9-Bridges)’ 전략 중 가스, 북극항로 등 북극 관련 주요 분야의 구체적 이행을 위한 협력 방안을 포괄적으로 논의하고, 양국 간 북방협력의 질적 발전을 모색했다고 외교부는 전함.
- 양측은 또 북극항로 활성화를 위해 양국이 진행 중인 제도적 지원(항만시설 사용료 감면, 화물 볼륨 인센티브 지원 등), 항만 현대화, 제2 쇄빙연구선 공동 활용 등의

현황과 계획을 공유하고, 향후 북극항로 활용 확대를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했다고 외교부는 밝혔다.

2. 주변국정세

가. 미·중 관계

2017. 11. 29.

■ 미 상무부, 중국 알루미늄 반덤핑 조사·중국 “보복 따를 것”(미국외소리)

- 미국 상무부가 중국의 알루미늄 덤핑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데 대해 중국이 보복을 위협함.
- 미 상무부는 28일 중국산 알루미늄의 덤핑과 불법 보조금 지급 여부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 상무부는 중국산 알루미늄이 정상적인 수준보다 낮은 가격으로 팔리고 있고, 부당한 정부 보조금을 받고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조사한다고 밝혔으며, 이에 대해 중국은 “중국 기업들의 합법적인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대응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 미, 안보리 긴급회의서 “중국에 원유공급 중단 요구·전쟁시 북 완전 파괴”(자유아시아방송)

-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대사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시험 발사한 북한에 대해 전쟁시 완전히 파괴할 수 있다고 경고하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북 원유공급 중단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 요구했다고 밝혔다.
- 헤일리 대사는 “대북제재를 통해 북한 무역의 90%와 유류 공급 30%를 차단했지만, 원유는 여전히 공급되고 있다”며 “북한의 핵 개발을 가능하게 하는 동력은 원유”라고 지적했다.
- 또한 “우리는 중국이 더 많은 역할을 하기를 원한다”며 중국이 대북 원유공급을 중단할 것을 촉구함.

2017. 11. 30.

■ 트럼프, 시진핑과 통화…“비핵화 기용수단 총동원” 요구(연합뉴스)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9일(현지시간)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도발과 관련,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중국이 북한의 핵 도발 포기와 비핵화

- 를 위해 가용수단을 모두 동원해야 한다고 요구함.
-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시 주석과 전화통화를 갖고 북한 미사일 도발에 대한 대책을 논의한 자리에서 이같이 주문했다고 백악관이 전함.
 -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도 이날 양국 정상은 전화통화를 통해 북핵문제에 대해 논의했으며, 시 주석은 “중국은 미국을 포함한 역내 유관 각국과 계속해서 소통하고, 북핵문제를 대화와 협상을 통한 평화적 해결의 방향으로 함께 발전시켜 나가길 원한다”고 강조했다고 보도함.

■ 워싱턴서 美中 군장성들 비공개 회담…北사태 논의 주목(연합뉴스)

-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로 긴장이 고조한 와중에 미국과 중국의 장성들이 미국 워싱턴에서 비공개 군사회의를 갖고 북핵 위기 대처방안 등을 논의했던 것으로 알려짐.
- AP통신에 따르면 29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 있는 국방대학(NDU)에서 미 합동참모본부의 리처드 클라크 중장, 중국 중앙군사위원회 연합참모부 부참모장인 사오위안밍(邵元明) 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양국 군 대표단의 비공개 회의가 열림.
- 이 회의는 이날 북한이 ICBM 도발을 감행한 지 불과 몇 시간 후에 열려 양국 군이 북한 문제를 논의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됨.

■ G2 무역갈등 심화하나…“美, 中 ‘시장경제 지위’ 인정 거부”(연합뉴스)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 체제 내에서 ‘시장경제국’으로 인정해 달라는 중국의 요구를 거부했으며, 이에 따라 미·중간 무역 갈등이 더욱 심화할 조짐을 보인다고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와 미국 뉴욕타임스(NYT)가 30일(현지시간) 보도함.
- 보도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중국이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 체제 아래 시장경제국과는 반대의 방향으로 가고 있다며 중국에 대해 시장경제 지위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법률의견서를 지난주 WTO에 제출함.
- 의견서를 작성한 미국 측 변호사들은 “WTO 회원국들이 시장경제원칙에 따라 결정되지 않은 가격이나 비용을 거부할 수 있다는 오래된 권리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압도적 근거가 있다”고 설명함.

■ **中, 대북 원유공급 중단요구에 난색…기존 유엔결의 이행만 강조(연합뉴스)**

- 경창(耿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30일 정례 브리핑에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과의 통화에서 북한에 원유공급을 끊으라고 요구했다는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의 언급에 대한 평론을 요구받고 난색을 표시함.
- 경 대변인은 즉답을 피하면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여러 차례 대북 결의를 통과시켜 북한을 제재하고 있다. 중국은 유관 결의가 전면적이면서도 완전하게 집행하고 실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고 답변함.
- 경 대변인은 “중국은 안보리에서 통과된 대북 결의를 전면적이고 완전하게 집행하며 우리가 해야 할 국제 의무를 마땅히 이행할 것”이라며 “한반도 비핵화 목표를 추진하고 평화안정 유지와 대화 협상을 통해 유관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유관 문제를 처리할 것”이라고 설명함.

나. 미·일 관계

2017. 11. 29.

■ **트럼프·아베 통화 “대북 압력강화…한미일 긴밀협력 방침 확인”(연합뉴스)**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29일 북한의 탄도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전화통화를 하고 대북 위협을 억지하기 위해 미·일 동맹을 공고히 하고 대북 압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교도통신과 NHK가 보도함.
- 보도에 따르면 도널드 대통령과 아베 총리는 이날 통화에서 특히 중국의 추가 역할이 중요하다는 데도 의견을 함께 함.
- 미·일 정상은 또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미·일, 한미일이 긴밀히 협력한다는 방침도 확인했다고 통신은 보도함.

■ **미일외교장관 통화…“北핵·미사일, 미일안보에 위협…용인못해”(연합뉴스)**

- 고노 다로(河野太郎) 일본 외무상은 29일 렉스 티러슨 미국 국무장관과 전화통화를 하고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포함한 핵·미사일 개발은 미일 양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것인 만큼 결코 용인할 수 없다는 데 인식을 함께했다고 일본 외무성이 밝힘.
- 외무성에 따르면 두 장관은 이날 오전 11시께부터 20여 분간 통화했으며, 지금은 대북 압력을 강화해야할 국면이라는 데 뜻을 같이 함.
- 두 장관은 세계 각국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의 완전한 이행을 강조하는 한편 미일, 한미일의 협력을 한층 긴밀히 하기로 했다고 외무성은 덧붙임.

다. 미·러 관계

2017. 11. 25.

■ 러 외무 “北 핵실험 않은 2개월 동안 美가 北 자극한 것 우려”(연합뉴스)

- 러시아 외무장관은 24일(현지시간) 북한이 미사일 발사나 핵실험을 하지 않은 지난 2개월 동안에도 미국이 북한을 자극하고 도발하려 한 것이 우려스럽다고 비판함.
- 타스 통신 등에 따르면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이날 모스크바를 방문한 고노 다로(河野太郎) 일본 외무상과 회담한 뒤 공동기자회견에서 “북한이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를 하지 않은 최근 2개월 동안 미국은 마치 이것이 마음에 들지 않은 듯 북한을 자극하고 도발하는 무슨 일인가를 하려고 애썼으며 이는 아주 우려스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 라브로프 장관은 이어 “북한을 구실로 한 과도한 역내 군비확충과 군사화는 허용될 수 없다는 점에 대해 파트너들의 주의를 촉구했다”면서 “미국과 동맹국들의 조치는 (북한 위협을 응징하기 위한) 합당한 조치에 전혀 비례하지 않는다”고 지적함.

2017. 11. 29.

■ 러시아 의회, 北 미사일 발사 소식에 美·北 함께 비판(연합뉴스)

- 러시아 의회 지도부는 28일(현지시간)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소식에 북한과 미국을 한꺼번에 비판하는 반응을 보임.
- 타스 통신 등에 따르면 러시아 상원 국제문제위원회 위원장 콘스탄틴 코사체프는 “북한은 최근 2개월여 동안 자제를 보이고 국제사회를 상대로 도발을 하지 않았다”고 상기시키면서 “북한은 분명 서방의 상응하는 자제를 기대했으나 그렇게 되지 않았다. 이번 (미사일) 발사는 미국과 그 동맹국들이 유연성을 보이지 않은 데 대한 실망의 표시인 것으로 보인다”고 발언함.
- 하원 국제위원회 위원장 레오니트 슬루츠키도 미사일 발사에 대해 “역내 대립에 불을 붙이는 북한의 또 다른 무책임한 행보”라고 지적하면서도 “미국과 한국이 성명과 군사훈련 등으로 북한을 여러차례 도발했음을 인정해야 한다”고 지적함.

2017. 12. 01.

■ 러, 쿠릴열도에 지대함미사일 배치 추진…美 견제용(연합뉴스)

- 러시아가 쿠릴열도(일본명 북방영토) 마투아(일본명 마쓰와도)와 파라무시르(일본명 파라무시루도)에 지대함 미사일 배치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러시아 일간 이즈베스티야는 러시아군이 마투아와 파라무시르에 기지를 건설해 최신형 지대함 미사일 '바르'(최대 사정 120km)와 '바스티온'(최대 사정 600km)을 배치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난달 29일(현지시간) 보도함.
- 일본 요미우리(讀賣)신문은 1일 러시아군의 이런 계획은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는 미군에 대항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풀이함.

라. 중·일 관계

2017. 11. 25.

■ 日 “中 해경선 3척, 센카쿠열도 영해 진입”(연합뉴스)

- 중국 해경국 소속 선박 3척이 29일 오전 일본과 영유권분쟁을 겪는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열도 주변 해역에 진입했다고 NHK가 보도함.
- 보도에 따르면 일본 해상보안본부는 이들 해경선이 이날 오전 9시께 센카쿠 열도 우오쓰리시마(魚釣島) 앞바다 일본 영해를 잇달아 진입한 것을 확인했다며 해당 해역에서 나갈 것을 경고함.
- 중국 당국 선박이 일본이 영해라고 주장하는 센카쿠열도 주변에 진입한 것은 지난 2일에 이은 것으로, 올해 들어서는 27번째임.

마. 중·러 관계

■ 특이사항 없음.

바. 일·러 관계

■ 특이사항 없음.

Ⅲ 북한인권

■ 개요

분류	일자	
북한인권 국제동향		특이사항 없음
북한인권 내부동향		특이사항 없음
북한인권 남한동향	11.24	정세균 국회의장 속초 방문…실향민 간담회(연합뉴스)
	11.30	박주선, 북한이탈주민법 및 기부금품법 개정안 대표발의(연합뉴스)
탈북자 이산가족 납북자 국군포로	11.28	탈북자 선호 직업교육…'1종 대형운전', '요양보호사'(자유아시아방송)
		미 고위관리 "탈북 병사, 북한 주민 삶 보여주는 창"(미국의소리)
	11.29	중국 선양서 체포된 탈북자 10명 북한으로 강제 송환돼(미국의소리)
	12.1	미국 내 탈북자들 "북한 미사일은 주민들 인권 희생 결과"(미국의소리)
대북지원	11.24	영국 외무부 "대북 원조자금 제공 모두 중단…핵개발 용납 못 해"(미국의소리)
		WFP "한국이 약속한 대북지원, 매달 50만명 취약계층 도울 것"(미국의소리)
	11.28	호주 외교부 "대북 인도주의 지원 중단…분배감시 어려워"(미국의소리)
		외교부, WFP와 협의회…"대북지원시 모니터링 중요"(연합뉴스)
	11.30	유니세프 "방미 통일차관 등과 만나 대북지원 논의할 것"(연합뉴스)
	12.1	국무부, 한국 정부 대북지원 논의에 "제제 이행해야"(미국의소리)

1. 북한인권 국제동향

- 특이사항 없음.

2. 북한인권 내부동향

- 특이사항 없음.

3. 북한인권 남한동향

2017. 11. 24.

■ 정세균 국회의장 속초 방문…실향민 간담회(연합뉴스)

- 정 의장은 우리나라 대표적 실향민촌인 청호동 아바이 마을을 방문해 청호새마을금고 회의실에서 열린 실향민 간담회에 참석함.
- 간담회에서 정 의장은 “실향민 어르신들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이산가족 상봉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어 죄송한 마음”이라며 안타까움을 전함. 이 자리에서 실향민 어르신들은 실향민 박물관 속초 건립과 정부 차원의 실향민 축제 개최 등을 건의함.
- 정 의장은 “실향민 박물관 건립 필요성은 공감하나 국가사업인 만큼 장소 문제는 이견이 있을 수 있다”며 “박물관 건립과 축제 개최 등 건의사항은 관련 부처와 협의해 보겠다”고 말함.

2017. 11. 30.

■ 박주선, 북한이탈주민법 및 기부금품법 개정안 대표발의(연합뉴스)

- 국민의당 박주선(광주 동구 남구을) 국회의장은 30일 남북하나재단의 기부금 모집에 있어 발생하는 법적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등을 대표 발의함.
- 남북하나재단은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으며, 최근 3년(2017년 6월 말 기준)간 33억 6천여만 원의 기부금을 모집함.
- 그러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하여 설립된 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게 돼 있어, 남북하나재단이 기부금품을 모집하기 위해서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상 예외조항의 적용을 받아야 할 처지임.
- 박주선 부의장은 “북한 이탈 주민의 정착지원을 위한 기부금품 모집은 당연히

허용돼야 함에도 법적 모순상태가 지속돼 조속히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법안 발의 이유를 설명함.

4. 탈북자 및 이산가족·납북자·국군포로

2017. 11. 28.

■ 탈북자 선호 직업교육…‘1종 대형운전’, ‘요양보호사’(자유아시아방송)

- 한국에 온 탈북자들은 1종 대형운전과 요양보호사 교육을 가장 선호하는 직업 교육으로 꼽음. 해당 직종들은 특별한 기술이나 경력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으로 분석됨.
- 한국 통일부에 따르면 올해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 내에서 직업훈련 과정을 거친 탈북자 257명 가운데 절반이 넘는 133명이 1종 대형운전 교육을 선택함. 하나원 내에서 운영하는 직업 훈련 과정 가운데 가장 높은 선호도를 기록한 것임.
- 1종 대형운전의 뒤를 이어 지게차 운전과 요양보호사 교육을 선택한 탈북자들은 각각 59명, 37명을 기록함.
- 탈북자들이 1종 대형운전과 지게차운전, 요양보호사 교육을 가장 선호하는 교육 과정으로 선택한 것은 다른 직군에 비해 비교적 취업이 쉽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됨. 통일부는 “남성의 경우 중장비 직군을 선택하는 사람이, 여성의 경우는 요양보호사나 미용 분야를 선택하는 것이 만족도가 높다”고 설명함.

■ 미 고위관리 “탈북 병사, 북한 주민 삶 보여주는 창”(미국의소리)

- 최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을 통해 탈북한 북한 병사는 북한 주민들의 삶을 들여다 볼 수 있는 창이라고 미 국무부 고위관리가 지적함. 군인들조차 끔찍한 영양실조를 겪고 있고 대다수 다른 주민들은 더 열악한 상황을 견디고 있다는 것임.
- 미 국무부의 브라이언 후크 정책기획관이 24일 뉴욕타임스 신문에 기고한 ‘북한 주민들에 들러붙은 기생충’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북한 정권을 강력히 비판함.
- 후크 정책기획관은 목숨을 걸고 귀순한 북한군 병사가 6발의 총상 이외에도 B형 간염과 폐렴에 감염됐고, 장에서는 최대 27cm에 이르는 기생충 수 십 마리가 나왔다고 지적함. 그러면서 이 병사의 비참한 처지는 북한 주민들의 삶을 들여다볼 수 있는 창이라고 말함.

- 정권이 모든 돈을 정밀 무기와 김 씨 일가를 위한 기념물, 엘리트 계층을 위한 뇌물로 사용하면서, 심지어는 신뢰 받는 병사들마저 끔찍한 영양실조에 시달리고 있고 대다수 다른 북한 주민들은 더 열악한 상황을 견디고 있다는 것임.
- 이어 북한 정권은 이처럼 잔혹하며, 이는 그런 것을 가능하게 만든 외국 정부의 책임이라고 지적함.

2017. 11. 29.

■ **“중국 선양서 체포된 탈북자 10명 북한으로 강제 송환돼”(미국의소리)**

- 중국에서 지난 4일 체포된 탈북자 10명이 북한으로 강제 송환된 것으로 알려짐. 한국으로 가려고 했던 이들은 북한에서 가혹한 처벌을 받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음.
- 탈북자 구출 활동을 벌이고 있는 한국 갈렙선교회의 김성은 목사는 28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이달 초 중국에서 체포된 탈북자 10명이 북한으로 강제 송환된 것을 북한 내 소식통을 통해 확인했다고 말함.

2017. 12. 1.

■ **미국 내 탈북자들 “북한 미사일은 주민들 인권 희생 결과”(미국의소리)**

- 미국 내 탈북자들은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 도발이 주민들의 인권을 희생한 결과라고 말함. 보다 강력한 제재와 압박은 물론 강제적 방안들이 뒤따라야 한다고 주장함.
- 미주탈북자선교회의 마영애 회장은 30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유엔 제재와 국제법을 위반하는 북한의 이 같은 행동을 철저히 근절시켜야 한다고 강조함. 아울러 북한 정권에는 국제사회를 위협하는 행동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함.
- 그러면서 핵과 미사일 개발에 사용할 돈으로 주민들을 더 잘 먹고, 주민들에게 자유를 부여해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하라고 덧붙임.
- 마 회장은 북한 주민들이 정치범 수용소 등에서 치욕적인 고통을 당하고 있는 상황을 국제사회가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말함.
- 미주탈북자동지회의 김창호 회장은 북한 정권의 핵과 미사일 개발 때문에 주민들의 삶이 희생됐다고 말함.

5. 대북지원

2017. 11. 24.

■ 영국 외무부 “대북 원조자금 제공 모두 중단…핵개발 용납 못 해”(미국의소리)

- 영국 외무부가 북한에 대한 공적개발원조(ODA)를 중단했다고 밝힘. 북한의 인권 유린과 핵무기 개발을 용납할 수 없다며, 대북 제재 이행을 강조함.
- 영국 외무부 대변인은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보리스 존슨 외무장관이 북한에서 벌이는 모든 원조 사업에 대한 자금 지원을 중단하도록 당국자들에게 지시했다고 말함.
- 그러면서 영국은 여전히 북한 정권의 인권 유린에 대한 규탄에 단호한 입장이라고 설명함. 이어 계속되는 북한의 핵무기 개발 시도는 용납될 수 없다며, 영국은 북한 정권에 제재를 부과하는 국제적 노력의 최전선에 남아 있다고 강조함.

■ WFP “한국이 약속한 대북지원, 매달 50만명 취약계층 도울 것”(미국의소리)

- 유엔 세계식량계획, WFP가 한국 정부의 대북 인도지원 계획에 거듭 기대감을 나타냄. 외부 원조가 크게 감소된 상황에서 매달 50만 명의 취약계층을 도울 수 있는 금액이라고 밝힘.
- WFP가 집행을 기다리는 대북 원조 자금은 한국 정부가 지난 9월 21일 지원을 의결한 450만 달러임.
- 당시 한국은 WFP와 유니세프에 800만 달러 규모의 대북 인도적 지원을 결정했지만 해당 금액의 공여는 이뤄지지 않고 있음.
- 샬리 맥도너 WFP 워싱턴 지부 선임대변인은 22일 ‘VOA’와의 전화인터뷰에서 최근 한국을 방문한 데이비드 비슬리 WFP 사무총장이 한국에 조속한 지원을 요청했는지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알지 못한다고 말함.
- 자금 지원이 이뤄지면 앞으로 6개월 동안 매달 약 50만 명의 임산부와 아동에게 충분한 영양 공급을 할 수 있다는 설명임.
- 앞서 비슬리 사무총장은 22일 한국에서 조명균 통일부 장관을 면담하고 대북 인도 지원 사업 등에 관해 의견을 교환함.

2017. 11. 28.

■ 외교부, WFP와 협의회…“대북지원시 모니터링 중요”(연합뉴스)

- 외교부는 28일 서울에서 세계식량계획(WFP)과 제3차 한-WFP 정책협의회를 개

- 최, 우리 정부의 대북 인도적 지원 등을 놓고 의견을 교환함.
- 외교부에 따르면 양측은 국내 잉여쌀을 활용한 개도국 식량원조, 우리 국민의 WFP 진출 확대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하는 한편 WFP의 인도적 지원 및 개발협력 분야 상호 협력 확대 방안과 구체 사업에 대한 협력 방안에 대해서도 협의함.
 - 대북 인도적 지원과 관련, 우리 측은 정치 상황과 관계없이 추진한다는 원칙과 지난 9월에 발표한 국제기구를 통한 대북 지원 결정 등을 설명하고, 구체적 지원 시기는 남북관계와 제반 여건 등을 고려해서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참석자가 전함.
 - 그러면서 우리 측은 향후 WFP를 통한 대북 지원 시 전용 등의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WFP에서 체계적이고 엄격하게 모니터링을 해야 한다고 강조함. 이에 대해 WFP 측은 정치적 상황과 관계없이 지원하겠다는 우리 정부의 입장에 대한 환영의 뜻과 함께 대북지원 모니터링의 중요성을 이해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참석자는 소개함.
 - 또 외교부와 WFP는 이번 정책협의회 계기에 WFP의 중앙아프리카공화국 긴급 식량지원 사업 및 인도적 지원 물품 수송기 지원 사업에 우리 정부가 각각 250만 달러를 기여하기 위한 사업 약정에 서명했다고 외교부는 전함. 양측 수석대표로는 정진규 외교부 개발협력국장과 크리스 케이 WFP 공여국장이 각각 참석함.

■ 호주 외교부 “대북 인도주의 지원 중단…분배감시 어려워”(미국의소리)

- 호주 정부가 북한에 대한 인도주의 지원을 중단함. 분배 감시를 위한 접근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밝힘.
- 호주 외교부는 지난해 세계식량계획, WFP 대북 영양지원 사업에 대한 자금 지원을 마지막으로 대북 인도주의 지원을 중단했다고 밝힘.
- 호주 외교부 대변인실은 26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현재 대북 인도주의 지원에 동참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설명함.
- 그러면서 호주 정부가 지원한 인도주의 사업에 대한 분배 감시가 허용되지 않은 것이 중단의 이유라고 설명함.
- 호주 정부는 지난 2015년 12월, WFP의 2016년 대북 영양 지원 사업에 3백만 호주 달러, 미화 220만 달러를 지원했음.
- 당시 호주 외교부 대변인은 ‘VOA’에 만성적인 영양실조에 시달리는 북한 어린이와 임산부, 수유모 등 북한 취약계층을 위한 결정이었다고 밝혔음.

2017. 11. 30.

■ **유니세프 “방미 통일차관 등과 만나 대북지원 논의할 것”(연합뉴스)**

- 유니세프(유엔아동기금)는 미국을 방문중인 천해성 통일부 차관 등과 만나 대북지원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30일 보도함.
- 유니세프 뉴욕본부 대변인실이 29일(현지시간) ‘VOA’에 보낸 이메일에 따르면 천차관 등 한국 정부 대표단은 30일 오마르 아브디 유니세프 사무차장, 마누엘 폰테인 긴급구호국장과 대북 인도주의 지원을 포함해 협력관계 전반에 대해 논의함.
- 유니세프는 이번 면담이 한국 정부의 요청으로 이뤄지는 것이라면서 “이번 면담이 전세계 어린이들을 위한 유니세프의 인도주의 사업에 대한 한국과 유니세프 간 협력관계를 논의하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힘.
- 앞서 우리 정부는 지난 9월 21일 세계식량계획(WFP)과 유니세프의 대북 인도주의 사업에 각각 450만 달러와 350만 달러를 지원하기로 했지만, 아직 해당 금액의 공여는 이뤄지지 않고 있음.

2017. 12. 1.

■ **국무부, 한국 정부 대북지원 논의에 “제재 이행해야”(미국의소리)**

- 미국 국무부는 한국 정부와 국제기구들 사이에 대북 지원 논의가 진행 중인 것과 관련해 대북 압박 필요성을 강조함.
- 캐티나 애덤스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대북 지원 결정에 대해선 한국에 물어보라고 말함.
- 애덤스 대변인은 30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이번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로 북한의 핵 위협 수위가 높아진 상황에서 한국 정부가 뉴욕에서 대북 지원 방안을 협의 중인 것과 관련해 이같이 말함.
- 이어 모든 나라가 북한 정권에 최대의 외교적, 경제적 압박을 가하기 위한 행동을 취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함.
- 이번 주 워싱턴을 방문해 미 고위 당국자들을 면담한 천해성 한국 통일부 차관 등은 30일 뉴욕에서 유니세프(유엔아동기금) 관계자들을 만남.
- 유엔본부 유니세프 뉴욕 본부 대변인실은 전날 ‘VOA’에 한국 정부의 요청에 따라 이뤄지는 이번 회동에서 양측은 대북지원 협력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힘.